

살림밀천 챙기며 재정력 과시

임실군, 본예산 4000억원 돌파... 1000억원 증가

임실군이 처음으로 순수한 본예산으로 4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민선 6기가 시작한 이듬해인 2015년 본예산 규모는 3000억원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4년만에 1000억원이 증가하는 재정력을 과시하며, 내년도 '넉넉한 살림밀천'을 챙겼다.

임실군은 민선 7기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의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 4,013억원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3,674억원보다 339억원(9.22%) 증가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는 235억원(6.86%) 증가한 3,654억원, 특별회계는 104억원(40.94%) 증가한 359억원 규모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올해보다 22억원이 증가

한 857억원이 편성됐다.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과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등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 조성과 임실치즈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임실치즈 식품클러스터 등 임실N치즈 미래산업화를 앞당기는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옷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 19억원,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10억원, 임실치즈 테마공원 조성 20억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 16억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섬진강 예코뮤지엄 조성 52억원, 태조 회관의 숲 조성 20억원,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1억원, 대표관광지 조성 13억원 등 31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 분야

는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복육비 지원 등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구축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을 위해 760억원이 확보됐다.

보건 의료 등 취약분야에도 적극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갈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민선 6기 초반에는 예산이 3천억원 수준이었는데, 민선 7기에는 추경반영 없이 본예산만으로 4천억원을 넘었다"며 "이는 모든 공직자가 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로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획기적인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심 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과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겠다"며 "국비와 교부세 확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며, 5천억원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2020~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순창군이 2천억원 돌파는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성과에 머물지 않고 2020~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황숙주 군수 주재하에 실과소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2021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은 총 113건에 총사업비 7,443억원(국비 5,070억원)으로, 군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쳐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0~2021년도 신규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해왔다. 주요사업으로는 ▲순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170억원) ▲국지도 55호선(순창~구림간) 4차로 확장사업(919억원) ▲국도21호선(쌍계~금정) 위험도로 정비사업(20억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유치(290억원) ▲장애인복지관 건립(40억원) ▲풍산 외도간 하수관거 정비사



순창군이 최대 국가예산 확보에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업(112억원) ▲캠핑 플랫폼 구축사업(44억) ▲청년허브센터 설치(15억) 등이다. 특히 순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구도심의 주거공간 개선과 순창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로 군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순창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순창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사업에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군은 내년도 신규국가예산으로 2,074억원을 확보했으며, 분야별로는 복지·보건 분야 371억, 농업·농촌 분야 277억, 경제·SOC 분야 630억, 문화·관광분야 121억, 안전·환경 분야 675억원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다"며 "순창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사업에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군은 내년도 신규국가예산으로 2,074억원을 확보했으며, 분야별로는 복지·보건 분야 371억, 농업·농촌 분야 277억, 경제·SOC 분야 630억, 문화·관광분야 121억, 안전·환경 분야 675억원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20일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일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처리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균)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19건의 사업예산 31억 9천 만원을 삭감해, 일반회계 3,575억원과 특별회계 260억원 등 총 3,835억원 구

모의 예산을 수정결하는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정성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 공직자에 고마움을 표하고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군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집행부에 내년도 군정에 대한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산내면 겨울놀이마당 개최

남원시 산내면 삼화마을 경로당 주변에서는 제5회 산내겨울놀이마당(추진위원장 주상용)이 펼쳐지며 팽과리와 박수소리로 술렁거렸다.

이 행사는 2014년 겨울에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산내겨울놀이마당은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검증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로 인해 금품 등 손해를 입은 마을어르신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고민하던 지역청년들이 만든 문화공연이다.

잔치 시작은 매년 가을걷이가 끝나갈 무렵에 전제단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연의 컨셉트, 주제 등을 논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비(한 해 800여 만 원 소요)는 놀이단 단원들이 실시 일반 모아 마련해오다 2년 전부터는 기금마련을 위한 후원 주점을 열었으며, 2개 조직(추진위원회, 놀이단)과 3개 팀(마당극, 가수, 자원봉사) 4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물과 풍마공연 등 재주가 많은 작은마을 운여정(복수)씨가 산내놀이단 단장을 맡아 단원들을 이끌어 더불어 사는 마을 만



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산내초등학교 강당에서 4회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올해에는 초등학교 강당까지 나오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마을공연' 5회와 산내초등학교 강당에서 펼쳐지는 '열린공연' 1회, 총 6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공연은 2019년 1월 27일에 열린공연으로 산내초등학교 강당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이날은 산내겨울놀이마당 추진위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이 담긴 점심식사와 조그마한 선물도 마련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시행한 2018년 기초생활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는다.

남원시는 2018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북도내 기초생활보장분야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분야 1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자 확인 조사 기간 내 처리율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팀장 김문호)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 등으로 신규수급자를 발굴하고, 정기확인조사 및 복지대상자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 해왔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조기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강원구 주민복지과장은 "확대되는 사회보장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있다며,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초수급자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환경안전 사각지대 예방활동 강화 나서

임실군의 환경과수꾼의 역할을 할 '임실군 명예환경감시원' 37명이 새롭게 위촉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에 들어간다.

'임실군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점검, 환경 지킴 캠페인 등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작됐다.

임실군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보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37명의 임실군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했으며, 임기는 2019~2020년까지 2년간이다.

주요 감시내용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행위 신고, 하천, 산 등 오염물질 배출, 폐수 배출업소 사업장 무단 방류, 매연과다 차량 신고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이 의무와 역할이다.

박진두 부군수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불법쓰레기 배출 등 군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의 단속이 잘 닿지 않는 환경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명예환경감시원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내버스, 새해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남원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000원의 단일요금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와 남원여객은 20일 이환주 남원시장,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 서기춘 남원여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남원여객이 운행하는 모든 노선의 버스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은 500원으로 단일화된다.

남원시는 그동안 최고 2,000원의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상한 요금제를 시행하여 시민의 교통비를 줄여 왔으며, 내년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시내버스 이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남원시에서 보전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는 민선7기 이환주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